

경제

반도체·금형 수출 타격 우려

■ 일본 대지진... 광주·전남 산업계 영향

작년 對日교역 51억달러 바짝 긴장

일본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해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교역규모가 924억 달러에 달하는 등 각종별 교역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대일교역 51억달러>= 1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은 수출 24억6605만달러(광주 7억2249만달러, 전남 17억4356만달러), 수입 26억6760만달러(광주 11억6149만달러, 전남 15억0411만달러) 등 총 51억3366만달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메모리·반환기 등 프로세서와 컨트롤러가 4억

9773만달러 등 전기기기와 부품이 5억5146억달러로 전체 일본 수출의 76.3%를 차지했다. 이어 배설·사과술 등 발효주가 3351만달러, 승용차에 들어가는 고무와 관련 제품이 3231만달러, 철강 및 철강 제품이 2673만달러 등이었다. 수입도 전기기기와 부품이 8억2178만달러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기기 등 기계류가 1억488만달러, 고무 및 관련 제품이 3780만달러, 철강 및 철강제품이 3663만달러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철강과 철강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의 48.9%를 차지한 8억5336만달러로 나타났다. 광물성

연료·광물류 등이 1억4459만달러, 폴리에틸렌이 5653만달러 수출했다. 수입은 유기화학품이 7억6180만달러, 철강이 2억4433억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석유화학 반사이익>=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차등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생산시설의 가동이 상당수 중단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양희 박사는 "자동차나 석유화학 등 생산이 적어 한 달 간은 중단될 수 있고, 여진에 따라 반도체 생산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일본으로부터 공급 받는 부품 비율이 전체의 1%도 채 안

되고 일본에 판매법도 없어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대일 수출이 없어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수입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철강, 중화학 부품 등은 수급 차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엠코테크놀로지나 한국알프스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일본 수출이 늘고 있는 광주지역 금형업체들도 머뭇거리고 있다. 또 일본의 민관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경우 관광산업은 직접적 타격이 우려된다. 대지진으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日 여행 지진피해자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천재지변인 지진으로 한국 여행객이 숨지거나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발생했던 쓰나미(津波·Tsunami) 사건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보상이 가능해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나 사망한 경우 혹은 다친 경우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금은 다르다. 보통 여행자들이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많이 들어주는데 이는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기간간 중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이 다. /연필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국제유가·日 강진 피해상황 주목 반대 급부 성격 車·유화업종 유망

KOSPI가 이를 연속 낙폭을 확대하며 1,950선까지 하락했다. 3월초 기술적 반등 이후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횡보하던 KOSPI가 지난주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소요사태 지속과 남아공 재정부 위기 재부상,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와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 해외 악재들과 함께 상승전세를 필두로 한 국내기업들의 1/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조정에 따른 실적둔화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에 2월 미 ISM 제조업 지수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61.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상승 기대보다는 중동과 유로존 리스크에 의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모멘텀 둔화 가능성, IT업종의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1/4분기 기업들의 실적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1/4분기 실적 전망치를 10% 감액해도 턱여라운드 모멘텀은 여전히 유망하다. 따라서 1/4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향후 기업 실적 모멘텀이 유망하다는 안도감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둘째, 과거 국내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이익의 상승 추세가 맞물리는 구간의 주가 수익률은 대체로 양호했다. 셋째, IT주가 약세라고 하여 KOSPI 상승 흐름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한 IT 업종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

해진 투자 심리를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업종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KOSPI가 직전 저점인 1,920선에 가까워진다면 추격매도보다는 저점매수를 통한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1/4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에너지, 내구소비재 등 실적둔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과 원가부담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음식료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진도 8.9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측면에서 보면 지진 피해에 따른 일본 경제 둔화 우려로 엔화는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일본 주식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하고, 한국 주식시장도 전반적 강세를 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본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공장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와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의 주가 추이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1일 오전 광주 호림무도파크 4층 컨벤션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선거 및 제13대 유희열 회장 취임식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경총 유희열 회장 취임

유희열(74) 세화IMC 회장이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를 마친 임원선거는 광주경총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차기 회장에는 김국웅 우리로광통신 회장이 내정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1일 광주 호림무도파크 4층 컨벤션홀에서 이회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은태 광주시장, 지역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노사협력 대상 시상식, 회장 취임식을 했다. 유 신임 회장은 광주서중과 광주일고, 중앙대를 졸업하고 금호산업 총무·영업이사를 거친 뒤 현재 세화

IMC 대표이사 회장, (주)영안관광개발 아크로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광주경총 회장을 맡아온 임원선거는 이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또 유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김국웅 우리로광통신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광주경총을 이끌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노사협력 대상 및 유공자 시상식도 열렸다. 노사협력 대상은 1993년 설립 이래 부문급 사업장으로 노사화합을 실천한 디케이산업(대표이사 김보곤)이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완지구 분양가 4년새 21% 상승

3.3㎡당 704만원 ... 평균 120만원 올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4년 사이에 3.3㎡(1평)당 평균 12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생활정보신문 '사람방신문'이 최근 4년간 광주 수완지구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18개 단지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3.3㎡당 평균 12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완지구에서 첫 분양이 시작된 2006년 모아엘가·수완자이·우미린·영무에디움·코오롱하늘채 등 13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 583만원이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0년 수완지구에 공급한 수완대방·호반베르디움·수완이더원 등 신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704만원으로 평균 21% 가량 올랐다. 이는 수완지구 내 교육·금융·의료기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대형 쇼핑센터 등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분양가를 올리는 데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옛 30평형대의 경우, 2006년 3.3㎡당 555만원이던 분양가가 지난해 669만원으로 20% 상승했다. 40평형대는 3.3㎡당 684만원에서 748만원으로 9% 올랐고, 50평형대는 725만원에서 768만원으로 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형과 대형 아파트간 평당가격도 과거 30% 가까이 차가 났지만, 최근 들어 10%까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벽에 '희망의 벽화' 선물

보해 봉사단, 진월동 지역아동센터서

보해(하) '젊은 잎새 사랑나눔' 봉사단이 봄을 맞아 광주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의 벽화'를 선물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보해 '젊은 잎새 사랑나눔' 봉사단 30여명은 지난 12일 남구 진월동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담에 희망의 벽화를 그려넣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는 '좋은세상 만들기' 봉사단 10여명이 도안 스케치, 페인트 조색, 아트타일



봉사 등의 작업에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탤다. 보해 관계자는 "벽화 그리기를 통해 환경을 밝게 하고 아이들이 희망찬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光銀 中企대출 6조 돌파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6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임에도 원화 중소기업대출이 5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말 5조6762억원에 이어 최근 3290억원이 추가로 증가해 2년 3개월만에 중소기업대출 6조원을 달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Rank (등위) and Amount (당첨금/당첨자수). Lists lottery winners for the 432nd draw.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르지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1223-1772, 111-602-2532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광산동 농장양어장용매매. ▶면적: 4,000평, 철도및유지(그린벨트)관리사 15평(가든가능) 8미터 도로점.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점).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지: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자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지: ①500평 ②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건물: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남면 매리 집종지매매. ▶면적: 1,800평(보전관리). ▶건물: 건물 32평. ▶매매가격: 2억원.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화순 버스도요점 내지 808평 상가와 생활주거용 양양95천매도100억. ▶화순 대지 79 건평 210 공사4억 매도 495천. ▶금남동5가 대지80 건평300 공사4억 12억매도19억천. ▶송하동신8860평 공사지가295800 담보주택 1억천. ▶여수시 대지205 건평352 건평7는 20억천 매도10억. ▶동구 6차선 도로와 3차선도로코너 상업지 589평 건평6377평 공사지가 2793천 매도 23억. ▶북구청 부근 대지207 건평220 공사지가77억 매도295천. ▶대인동 대지149 건평338 공사지가693천 매도 897천. ▶북구 아파트단지 목욕탕, 골목안정동 대지440 건평 507 공사지가997천 은8594천 전세8700 월280만원 시유, 헬스 에 어로박은 직영할 소유권은 반이전 교환가능 1295천. ▶광주역 앞 월동 대지108 건평383 건평1198천 매도 697천. ▶화순 남면 대리리 도로점 농지지역 4782평 공장전할 건평7597평 매도 295천 매도 295천. ▶화순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93천. ▶충장동가 3층건물 대지20평 1층은한복집, 규방동작업 198천. ▶화순읍 삼천리 주거지역 587평 공사지 3945000매도 295천. ▶주요 화순읍 명 1118평 공사지가 1098천 매도1595천. ▶광주북구 담양군 무정 농지지역 2720평 분할가능 매도7억. ■매도·교환. ▶무암동은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화물동 작업 792천. ▶화정동 47리 6차선 도로변 준주거 480평 매도16억. ▶화순동 동면 서상리 별장은 250평 건평중 197500. ▶남원읍 교리리 버스도요점 211평 주택과공장을 19583백. ▶산수동 호남연산원 2층주거지 220평 사할발본주택 297천. ▶하남동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전할 39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5가 123-6, 우리은행 47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서구 광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 2층건물. ▶김정기 995천만 최저가 696천만. ▶광주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375평 지하1층. ▶지상층 김정기13억 최저가7698천만. ▶나주시 세지면 토지670평 건물180평. ▶김정기 1993천 최저가 7천만. ▶서구 광천동 토지43평 건물55평. ▶김정기 1억2천만 최저가 6천3백만. ▶북구 대충동 토지340평 건물117평. ▶김정기 3억4천만 최저가 2억7천만. ▶장성군 북이면 대지180평 건물46평. ▶최저가 5천만. ▶북구 두암동 디세대빌라 63평형 1층. ▶김정기 1억5천만 최저가 8천5백만. ▶이) 상담물건, 산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북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단지사실유지발당 501. 승마장용도 광주근교 임야 5-10만평 구함.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광산구 신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 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부채도로 점할, 담, 1,886㎡(570평), 3.3㎡당 90만원 생산녹지. ▶서구 세하동 서광동 부근 2,148㎡(650평), 담, 3.3㎡당 72만원, 생산녹지. ▶서구 세하동 매월농원 앞 1,720㎡(520평), 담, 3.3㎡당 65만원, 생산녹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양동 대지433㎡(131평), 전입,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9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2차선도로 내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내대지 513㎡(155평), 제2순환도로거지매매가 3.3㎡당 235만원, 캔티다 4당, 업무용빌딩 적함. ▶상무지구 내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점할,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옛 대지367㎡(111평), 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75억, 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 근린생활시설 입점.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보증금: 10억원 월세: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73억원.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32억원. ☆보증금: 8억2천 월세: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28억원. ☆보증금: 1억1천 월세: 350만 매매가: 6억7천.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322㎡ 건물: 95㎡ 매매가: 5천만원.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66㎡ 매매가: 2억3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해골 대: 1,330㎡건: 60㎡ 매매가: 2억8천만원. ☆담양군 수북면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1억2천8백만원. ▶대지, 전, 담, 임야. ☆치평동 대지: 370㎡ 매매가: 13억5천. ☆미륵동(30m도로점대) 1,350㎡매매가: 22억원. ☆완충동 청학마을대: 3,600㎡ 매매가4억9천. ☆덕흥동 생산녹지 담 434㎡ 매매가 1억7천.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 1억3천7백만원. ☆장성남면 임야: 13,500㎡매매가: 4억5천만원. ▶공장부지. ☆광산구 양동(계화관리지역)적종지: 11,856㎡ 매매가: 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